



○전북 익산지부 사무실 앞. 신동현 지부장(가운데)과 임철호 총무(좌측), 하은하 간사

2002년 우수지부

## 우량종돈과 사료 공동구매 사업으로 이익 주는 전북 익산지부

취재: 정재은

지난 2002년 철저한 회원 및 회비관리, 각종 세미나와 행사 개최,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한 전북 익산지부(신동현 지부장, 42세)를 2002년 우수지부로 선정하였다.

익산지부는 우량종돈 공급사업과 사료 공동구매 사업으로 회원들에게 이익을 되돌려 주고 있으며, 회원간의 결속력이 좋아 지부행사 등 모든 활동에 있어 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노력하는 단합된 지부이다.

익산지부는 익산지역 정착촌 양돈농가와도

교류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 돕고 있다. 또한 시 등의 관련기관과 협조가 잘 되고 있어 명실상부 지역 양돈산업을 이끌어 가는 구심체로써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지난 3월 18일 익산시 왕궁면 소재 집단촌에서 돼지콜레라가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회원을 비롯한 모든 양돈농가는 통신을 통한 정보 교환과 철저한 소독 및 방역활동으로 돼지콜레라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량 종자돈과 사료 공동구매 사업으로 회원들에게 이익 제공

익산지부는 시청과의 연계한 우량 종자돈 공급사업과 사료회사와의 계약을 통한 사료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회원들에게 이익을 되돌려 주고 있다.

신동현 지부장은 “처음에 익산시와 연계해 우량 정액 공급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전라북도 전체사업으로 확대되어 2002년부터는 우량 종자돈 공급사업으로 전환하였다.”고 말했다. 2002년 우량 종자돈 공급사업은 모든 갱신사업으로 총 사업비 7,488만원중 시청으로부터 절반 가량인 3,743만원의 지원을 받아 협회에서 믿을 만한 종돈장을 선정해 놓고 종돈 234두를 구매하여



▲익산지부는 철저한 회원·회비관리, 다양한 사업 및 세미나, 행사개최로 2002년 우수지부로 선정되었다. 좌측부터 신동현 지부장, 하은하 간사, 임철호 총무



▲익산지부 신동현 지부장

회원 37농가에 공급하였다.

2001년 10월부터 시작된 사료 공동구매 사업은 협회가 사료회사 2곳과 계약을 체결해 놓고 회원들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선정된 업체를 통해 사료 공동구매시 톤당 1,000원의 할인을 받으며, 할인된 금액으로 인해 회원농가는 이익을 얻게 되고, 나머지 일정금액은 협회 운영비(2002년의 경우 900만원)로 이용하고 있다.

탄탄한 조직 구성으로 단합되어 있는 익산지부

익산지부는 익산 지역의 돈우회가 모태가 되어 1987년 8월에 양돈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11대 신동현 지부장을 중심으로 임철호 총무, 부지부장 2명, 재무 1명, 감사 2명, 운영위원 7명 등 총 14명의 임원들과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부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지부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익산 지역은 700여 양돈농가가 23만두 정도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이중 47명이 지부회

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5만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 왕궁면 온수리와 구덕리 일대 집단촌을 비롯한 많은 양돈농가가 정착촌으로 자리 잡고 있어 지역 내 회원 비중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신동현 지부장은 “각종 세미나 및 회의, 단합대회, 우량종돈과 사료 공동구매 사업 등을 통해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여러 행사 활동에 지부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지 않고 다함께 참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익산지부는 위기상황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정착촌, 시 등의 관련기관과 정보 공유, 물품 지원 같은 교류를 통해 서로 돕고 있다.

신동현 지부장과 임철호 총무의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조직 구성력으로 익산지부는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2002년 40명이었던 회원이 2003년에는 47명으로 늘어났으며, 꾸준히 정착촌의 협회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철저한 소독과 시의 차단방역 노력으로 돼지콜레라 피해 최소화

이번 돼지콜레라는 지난 3월 18일 전북 익산시 왕궁면 소재 800두 규모의 농장 돼지 30여 마리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왕궁면 온수리와 구덕리 일대 집단촌에서는 430개 농가가 11만여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컸다.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컸지만 각 농장마다 방역 의식을 갖고 철저한 소독과 통제를 하여 4월 16일 현재 11군데에서 발생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임철호 총무는 “집단촌의 한성협동회와도 교류를 통한 신속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져 적절한 대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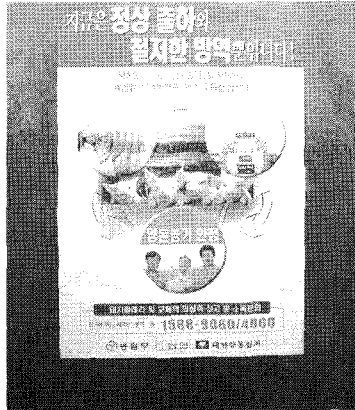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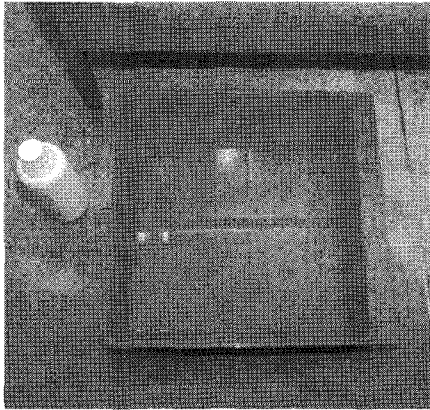
▲익산시는 도로입구에 초소를 마련해 놓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익산시는 왕궁면 온수리와 구덕리 집단촌 입구에 차량소독소를 설치하고, 농장 출입시 소독을 하도록 한다.



▲익산시는 한일기독병원 2층에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상황실을 마련하였다. 좌측부터 시청 축산과 정광수 계장, 양돈협회 신동협 지부장, 임철호 총무



▲익산지부는 발판소독조와(좌측) 방역포스터를 마련해 놓고, 회원들의 방역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익산시는 현재의 돼지콜레라 발생과 같은 비상시에 틀게이트나 도로 입구에 초소를 마련해 놓고 차량 소독 등을 확실히 하여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시청 축산과 정흥련과장, 정광수 계장, 문봉갑 계장 등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군·경찰과 협조아래 현장에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한일기독병원 2층에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지속적인 상황과약은 물론 살처분과 백신접종 실시에 따른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한편 신동현 지부장은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살처분을 하게 된 농가의 고통은 너무 크다.”며 “적절한 보상과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다양한 월례회의와 세미나, 단합대회 개최

지부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안전에 대해서는 먼저 운영위원에서 임시 회의를 열어 안전을 가결정한 다음 총회 때 회원들과 의결하여 처리를 한다. 월례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개최하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

려고 한다. 또한 사료회사나 약품회사의 협찬으로 2개월에 1번 정도 사양 관리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기술을 제공한다.

매년 춘계, 추계 2번의 등반대회, 하계 야외 수련회, 12월에 송년회 등 4번의 단합대회를 마련하고 있는데, 가족동반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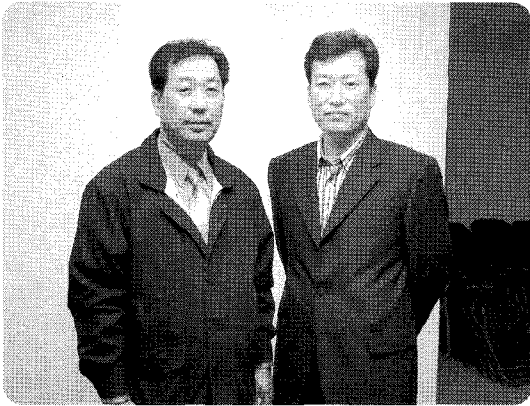
하며 화목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매년 구정과 추석 때가 되면 불우이웃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시청 총무과에 돼지고기를 전달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고 있다.

한편, 익산지부는 회원 등록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매년 6월내로 회비 및 자조금, TV홍보비를 100% 완납한다. 지부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지부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결·합심하여 각종 사업이나 행사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익산지부 사무실 내부 모습. 임철호 총무(우측)과 하은하 간사가 지부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신동현 지부장(좌측)과 임철호 총무의 뛰어난 업무추진력과 조직구성력으로 익산지부는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 활발한 사업수행으로 자연스러운 회원 가입을 유도해야

익산지부는 양돈협회를 통해서 사업이나 정책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 내 양돈 산업의 힘을 한 곳으로 모으고, 각종 홍보활동이나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신동현 지부장은 “양돈협회가 친목도모를 위한 단체에서 벗어나 회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일이나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자연스럽게 회원 가입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지부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우량 종자돈 공급사업과 사료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회원 농가에 이익을 주고 있다. 그리고 시청과 연계한 방역활

동,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착촌을 비롯한 익산지역의 양돈농가와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정보제공을 하며, 어려울 때 도움을 줌으로써 양돈협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저돈가 시기에 유통분야 연계를 통한 해결책 필요

신동현 지부장과 임철호 총무는 “생산자 단체도 유통 관련 교육과 축산기업중앙회 및 농협 유통부와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돼지를 생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장기적인 입장에서 저돈가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 초점을 맞추고, 제 값을 받기 위해서 농가 역시 제대로 된 시스템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 지부장은 “생산자 주도의 품질 높은 돼지를 생산하는 브랜드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뢰도를 높이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임 총무는 “적절한 요리 개발이 필수적이며, 생산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형 식육 유통센터 같은 체인화 사업이 시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돈**

#### 본지 캠페인

~~비선호~~ · ~~리인기부위~~ → **수출부위**